

CIGARETTE WITH LIPSTICK MARK ON IT

written by

Jin Jeon

Director's note: 이 영화는 흑백 영화지만, 영화 속 흑백은 푸른 셀로판지를 흑백의 위에 씌운 것처럼 푸른빛을 띄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씬에서만 푸른빛과 흑백이 사라지는데, 그 단 하나의 씬에선 씬 설명(Scene description) 뒤에는 "*"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씬 중간에 어디서 푸른빛과 흑백이 사라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고음의 소음(High pitched noise)가 들리는데, 그 소음이 사라지는 단 하나의 씬에선 씬 설명의 뒤에"^"라고 표시가 됩니다. 푸른빛과 흑백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게, 씬 중간에 어디서 고음의 소음이 사라지는지 설명이 됩니다.

Please enjoy the script of Anguish Trilogy's first film that is Cigarette with Lipstick Mark on it.

JJ, 2018.

어두운 화면에 고음의 소음이 들린다. 오래 들으면 두통을 유발할 느낌의 소리. 어두운 화면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고음의 소음이 들리던 중, 고음의 소음 사이로 곧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CUT FROM BLACK TO:

화면비 2.35:1. 주황빛의 완전한 보색인 남색에 가까운 푸른빛을 띤 흑백. 영상은 회색 빛이다. 조금 FADED.

PROLOGUE. EXT - 가로등 아래 - 밤

밤. 원룸 아파트의 주차장 앞. 화면의 3분의 2 이상이 그림자에 가려져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건물로 가려져 있고, 화면의 가장 왼쪽 구석에만 가로등 빛이 비춰진 거리가 보인다. 화면의 왼쪽 구석에 회색 옷을 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나이대로 보이는 여자, 이진이 보인다. 이진은 화면의 왼쪽 구석에서 몸도 왼쪽을 향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앙에서 벗어나고, 답답한 모습이다. 화면에 이진의 발은 나오지 않고, 허리까지만 나온다. 마치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두운 건물 이진을 누르는 것 같기도. 이진은 곧 주머니에서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준다.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이진의 모습을 오래 찍는다. 담배갑 안에 라이터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라이터가 담배갑 안에 들어있지만, 이 씬에선 잘 안 보인다. 하지만 이진의 담배갑 안에는 항상 라이터가 들어있다) 이진은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는다. 이진은 고개를 조금 내린 채 가만히 담배를 물고 있다. 담배를 조금 험겁게 물고 있어서, 담배가 아래를 향하고 있다. 뭔가를 깊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이진은 곧 발이 아픈 듯 고개를 더 내려서 발을 내려다본다. "쩍"하고는 다시 고개를 드는(고개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직도 고개는 아래를 향하고 있다) 이진. 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긴 정적. 이진은 담배를 담배갑에 넣는다.

그리고 ...

화면의 중앙에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거대한 눈이 보이는데, 카메라는 50MM MACRO 렌즈를 통해서 눈을 굉장히 가까이서 찍는다. 눈은 왼쪽 눈이다. [블레이드 러너]의 오프닝이 생각난다. 바로 전에 이진이 보이던 장면은 이 눈의 POV(시점샷)다. 이진이 담배갑에 담배를 넣는 부스럭 소리가 이어진다. 소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눈과 이진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대한 눈은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서, 우리는 눈의 크기에 놀리는 느낌이 들기도. 눈은 몇 초간 깜빡이지 않다가, 곧 살아있는 것처럼 깜빡인다. 카메라는 거대한 눈을 불편할 정도로 오래 찍는다(최소 7초 이상).

계속 거대한 눈이 화면을 지배하던 중, 이진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

CUT TO:

INT - 이진의 집 안 - 오전

벽에 걸린 그림이 보이는데, 여러 종이 가 이어지고 겹쳐져서 꽤나 크기가 큰(약 4절지 정도) 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오른쪽 눈 그림이다(프롤로그에 나온 거대한 눈까지 생각하면 왼쪽, 오른쪽 눈이 다 나오는 것이다). 눈 그림은 프롤로그에서 나온 거대한 눈보다는 작게 보인다. 카메라는 눈 그림 또한 길게 찍지만, 프롤로그의 눈보다는 짧게 찍는다(최소 5초 이상).

카메라는 계속 눈 그림을 찍는 와중에, 지갑 여는 부스럭 소리.

이진이 책상 앞에 앉아서 지갑을 열고 지갑 안의 돈을 확인해본다. 카메라는 이진을 하이앵글(HIGH ANGLE)로 찍는데, 앵글이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서 화면 전체에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이진의 옆으로 자막.

"월"

이진은 곧 지갑을 닫고 지갑을 자기의 오른쪽 앞에 내려놓는다. 지갑의 오른쪽 뒤로는 뒤집어진(전화기 화면이 아래를 향해있는) 전화기가 보인다. 곧 전화가 온 듯, 전화기가 진동한다. 전화기가 뒤집어져 있어서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는 안 보인다.

이진의 POV:

전화기는 진동때문에 책상의 위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치 전화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진 앵글. 이진은 뒤집어진 전화기를 조금 들어서 보는데, 받기 싫은 전화인 듯 한숨을 쉰다.

벽에 걸린 눈 그림이 보인다. 마치 그 눈이 전화를 받으라고 압박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화면 중간에 동그란 눈동자가 보이는 것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HAL 9000을 연상시키기도.

다시 기울어진 앵글. 그저 무시할 수 있는 전화는 아닌 듯, 이진은 전화기를 든다. 카메라는 여전히 기울어진 하이앵글로 이진을 찍는다. 이진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전화기를 오른 손으로 잡아서 왼손으로 넘긴 후 왼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이진이 이렇게 전화를 받으므로 우리는 절대 누구에게 전화가 온 건지 알 수 없다. 전화기가 이진의 측면 얼굴을 조금 가려서, 이진의 눈만 보인다. 이진의 눈은 무기력하다.

이진

네. ... 내일 두 시(2시)요. 카페.

카메라는 다시 벽에 걸린 눈 그림을 찍는다.

이진(CONT'D)

담배 안 핀다니까요? ... 연기도 안 해요 요즘. 네.

다시 이진의 모습.

이진(CONT'D)

... 끝어요.

이진의 마지막 "끝어요."에는 싸늘함이 가득하다. 이진은 전화기를 지갑의 오른쪽 뒤에 다시 뒤집어서 내려놓는다. 이진은 전화기와 지갑을 보다가 책상의 반대편을 본다. 카메라는 이진의 시선을 따라 PAN. 펼쳐진 파일이 보이는데, 파일은 지갑과 비슷한 거리에 놓여져 있다(그저 책상에 놓인 쪽만 반대일 뿐). 파일 안에는 이진의 프로필이 들어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진은 배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필에 적힌 "송이진"이라는 이름과 이진의 프로필 사진이 보인다.

CUT TO:

화장실. 조금 기울어진 앵글. 이진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진은 거울 앞에 있지만 고개를 내린 채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CUT TO:

기울어진 앵글. 화장을 한(화장을 진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진이 가방에 지갑을 먼저 넣고, 다음에 프로필이 든 파일을 넣는다. 이진의 옷은 나름 세련된 옷이다. 적당히 꾸민 느낌이 나는 옷.

CUT TO:

현관. 카메라는 이진의 뒤에서 현관과 이진이 전부 보이게 찍는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포커스 아웃된 눈 그림이 보인다. 눈 그림이 계속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진이 신발을 신는데, 한 쪽 발이 불편한 듯, 왼쪽 신발의 앞 부분을 꼭- 눌러본다. 신발이 약간 작은 듯, 신발 뒤꿈치 부분을 꼭- 잡아당겨 보고, 현관 바닥에 신발을 탁- 탁- 쳐보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CUT TO:

EXT - 거리 1 - 오후

조금 기울어진 앵글. 어느 건물에 살짝 울퉁불퉁한 반투명유리가 달려있다. 곧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이진이 걸어온다. 이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다. 이진은 그 유리에 살짝 왜곡되고 구겨지게 비춰진다. 카메라는 진짜 이진을 찍지않고 그 유리에 비춰진 이진을 찍는다. 곧ライター 불 켜지는 소리. 담배에 불 붙는 소리.

CUT TO:

EXT - 거리 2 - 오후

아직 해가 떠있는 거리. 기울어진 앵글. 이진이 긴 거리를 걷고 있다. 카메라는 이진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CUT TO:

EXT - 골목 1 - 오후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진 로우 앵글(LOW ANGLE). 불이 붙는 담배가 크게 보인다.ライター에서 가스 새는 소리. 누군가가 담배를 빨고, 연기를 뿜는다.

어느 골목. 이진과 그녀의 옆으로는 이진보다는 어려보이는 남자, 준상이 담배를 문 채 연기를 뿜고는ライター를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는 담배를 검지와 엄지로 집어서 핀다. 이진은 전처럼 담배를 물고만 있다. 준상이 화면의 중앙에 더 가까이 서있고, 이진은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벽에 기대고 있다. 준상, 담배에 불을 안 붙인 이진을 보고는ライター를 꺼내다가, 다시 뭔갈 생각하다가ライター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준상도 이진의 상황을 안다.

준상
프로필 아직도 안 바꿨더라 누나.

이진
나 많이 안 변했어.

준상
뭐래. 업데이트를 하고 살아야지. 지금 꺼 언제 꺼지?

이진
몰라.

이진, 또 신발이 불편한 듯 발 쪽을 본다. 발 쪽을 보며;

이진
... 반 년 전.

준상, 이진을 보며 담배를 빨고는;

작아? 준상

이진, 신발을 내려보다가 고개를 들고는;

 이진
아니 그, 이상하다? 한 쪽만 작아 신발이.

 준상
진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이진
(거의 혼잣말처럼)
바꿔야 되나 ... 신발 비싼데.

준상, 이진을 보며 담배를 빨고;

 준상
그건 그렇고, 누나 밥 먹었어?

 이진
아니.

 준상
그럼 같이 먹을래?

 이진
음 ... 그래. 어디서 먹을래?

 준상
그, 근처에 라멘집 있잖아. 거기?

 이진
거기 얼마지?

 준상
음 ... 그냥 평균적인 거 같은데. 육천원이면 평균적인 거 아닌가?

 이진
내가 쓸게. 그럼.

 준상
오- 웬일로?

 이진
같이 와줬잖아. 프로필 투어.

 준상
에이. 그거 하나 갖고 뭘.

 이진
알바는 언제?

 준상
그냥, 뭐 ... 그냥 그렇지 뭐. 내년부턴 다시 연기 하려고. 목표까진 모으거든 내년이면.

이진
부럽다. 아, 잠만. 내가 막 너 알바하는데 방해하고 그런
거 아니지?

준상
에이 그런 거 아냐. 이거 오는 거 재밌어. 옛날 생각도
나고. 담에 할 때 또 불러줘.

이진
목요일-- 아 근데 그날은 아직 정확히 모른다.

준상, 잠깐 생각하다가;

준상
아, 그땐 안 된다. 여친 만나러 가야 돼.

이진
여친 생겼어?

준상, 생각만 해도 좋은 듯, 가볍게 웃고는.

준상
어.

이진
축하해. 여친도 생기고. 부럽네.

준상
누나도 좀, 응? 만들어 봐.

이진
말은 쉽지.

준상
아 근데 누나 목요일에 심심하지 않아?

이진
아 그, 목요일엔 재영이랑 같이 가서 괜찮아.

준상, 그 말을 듣고는 조금 놀란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많이 내지 않는다.

준상
오 뭐야. 다시 만나 돌이?

이진, 말 끝나기 무섭게.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이진
뭘 다시 만나. 그냥 친구야.

준상
남녀사이에 친구가 어딴어.

이진
여겼다. 임마.

준상
누나가 차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진
깔끔하게 헤어졌어. 딱히 ...

짧은 정적. 그 사이에 이진은 뭔갈 생각한다.

이진
... 감정 없고.

이진은 "감정"이 있다.

준상, 이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볍게 웃는다. 이진은 뭔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낸다. 이진,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준상
뭐 적어?

이진
아 그, 아까 우리가 했던 말. "남녀사이에 친구가 어딴어". 거기.

준상
누나도 글 써?

이진
아니? 그 오디션에서 쓸 일 있을까봐.

준상
오 오디션 잡혔어? 축하해.

이진
야, 뭐가 축하할 일이야 이게.

준상
뭐야 ... 누나가 축하할 일처럼 말해놓고는.

이진
오디션만 수 천번이야. ... 물론, 진짜 수천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느낌은 그랬어. ... 근데 너가 한 말 좋다. "축하할 일처럼 말해놓고는."

이진, 노트에 또 뭔가를 적는다.

준상
결과는 언제?

이진
두 개 다 금요일.

준상
두 개 다? 오디션 두 개야?

이진
어? 아, 아니 그 같은 날 두 시에 카페 면접 하나 있는데, 음 ... 시간이 좀 애매해. 이동 시간이. 오디션 세 시(3시) 거든.

준상
그럼 하나 접어야지.

이진, 그 말을 듣고는 잠시 정적. 순식간에 다시 기죽은 표정이 된 이진은 노트를 넣는다. 준상은 이진의 표정을 보고는 말을 바꾼다.

준상
오디션 그건 뭐 영환데?

이진
그냥, 단편영화. 페이지가 좀 적은 ... 데 각본이 좋아.
되게 복잡해.

준상
내용이?

이진
내가. 아니 그 내 캐릭터가.

준상
아. 난 또.

이진
자기가 뭔지 모르는 여자 얘기거든.

준상, 장난처럼;

준상
뭔지 모른다고? 그거 누나잖아 그냥. 메소드 가능하겠네.

이진도 장난처럼;

이진
닥쳐. 너.

준상, 웃는다.

이진
감독이 애드립을 좋아하나봐. 오디션 각본 대사는 바뀌도 된다고 했어. 나중에 진짜 영화 찍을때도 바뀌도 된다고 하고. 솔직히 잘 바뀌야 제대로 인상 남겠지? 그대로 읽는 것보단.

준상
신기한 사람이네.

이진
그래서 엄청 많이 적어봤거든. 그, 잘 바꿔보려고 ...
근데 이것도 붙어야 다 쓰던 말던.

준상
으휴- 변덕은 앞자리 바꿔도 여전하네.

이진, 진담 반 농담 반 말투로.

이진
야. 나 아직 스물아홉이야. 생일 안 지났어.

계속 시계가 보이는 와중에, 이진의 대사가 OS(OFF SCREEN)으로 들린다.

이진(OS)
아직 묶고 다녀요. 손수건. ... 아직 묶어요. 손수건.

기울어진 앵글로 보이는 거실. 이진이 거실을 서성이며 대사를 외우고 있다.

이진(CONT'D)
... 엄마가 준 거 아직 묶어요. ... 이건 아니고.

그 순간, 진동 소리. 진동 소리가 나고, 이진이 전화기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카메라는 이진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는다.

여전히 기울어진 앵글. 이진이 책상을 본다.

이진의 POV: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가 진동하며 혼자 움직이고 있다.

다시 기울어진 앵글. 이진과 전화기가 같이 보이는 앵글. 이진은 자리에 똑- 앉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전화기를 넘겨서 전화기 화면을 보고는 전화를 받는다.

이진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는 대사가 끝나자마자, 카메라는 벽에 걸린 눈 그림을 찍는다. 이진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이진(OS)
... 어 되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웬일로 전화했어?
... 아 전시회 ... 멋있네 ... 돈 많이 벌겠다. 어? 난
강-- ... 난 강 ... 있어. ... 연기는 ...

잠깐 정적.

이진(OS, CONT'D)
안 해. 요즘. 어 연기 돈 안 되지. 알바 구하고 있어
요즘. ... 어 그래 답에 술 한 잔 하자. 어. 끊어.

이진이 "끊어"라고 말하는 순간 카메라는 다시 이진을 찍는데, 이진과 책상이 같이 보이게 찍는다. 여전히 기울어진 앵글. 이진,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가만히 고민하다가 대본을 잠시 본다.

이진
아직 안 끊어져서. ... 아직 묶-- ...

이진, 대본을 볼 맛이 안 나는 듯 대본을 내려놓는다. 가벼운 한숨. 이진은 곧 앞을 본다.

이진의 POV:
기울기가 똑바로 된 앵글. 눈 그림이 보인다. 눈 그림 천천히 ZOOM IN. 어찌보면 눈 그림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기도.

기울어진 하이앵글. 이진, 그림을 그만 보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그림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본다.

이진의 POV:
이진의 고개를 따라 아주 조금 기울어진 앵글.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로우 앵글로 보인다. 1시.

다시 기울어진 앵글. 이진, 시계를 보다가 고개를 돌린다.

CUT TO:

기울어진 앵글. 이진이 걸옷을 입고 있다. 혼잣말처럼 웅얼거리는 이진.

이진
묶어요. 묶고 다녀요. ... 아직 묶어요. 아직 묶고
다녀요.

CUT TO:

기울어진 앵글. 이진, 이번엔 아예 화장실 밖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 립스틱을 바르고는, 중지로 가볍게 입술을 쓸어본다. 립스틱이 골고루 묻게 정돈하는 것처럼.

CUT TO:

현관. 화면의 오른쪽 구석엔 포커스 아웃된 눈 그림이 조금 보인다. 신발을 신는 이진. 신발을 신는 와중에도.

이진
아직 묶어요. 묶고 다녀요.

이진, 신발을 신고 나가려다가, 문을 열기 직전에 멈춘다. 신발을 벗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신발을 신고 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신발을 한 쪽만 벗고. 한숨. 그러다가 그림이 있는 벽 쪽을 본다. 그 순간, 포커스가 눈 그림으로 맞춰진다. 눈 그림이 이진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은 가만히 고민하다가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간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거대한 눈의 POV:
이진이 담배를 물고 있다. 여전히 불은 안 붙인다. 곧 이진은 마치 담배를 빨고 연기를 뱉는 것처럼 담배를 입에서 뺀다. 이진은 굉장히 우울해보인다. 뭔가 슬프기라도 한 듯, 눈에 점점 눈물이 고인다. 이진은 말없이 조금 나온 눈물을 닦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UT TO:

INT - 이진의 집 안 - 오후

이진의 POV:
고음의 소음이 크게 들린다. 열린 담배갑이 보인다. 담배 여러 개비와 라이터가 보이는데, 담배 중 한 개비에는 립스틱 자국이 보인다. 지금까지 수십번, 혹은 수백번 물었다가 뺀 듯, 문대지고 길게 늘어진 립스틱 자국. 이진이 담배갑을 닫는다.

이진과 책상이 보인다. 여전히 기울어진 앵글. 담배갑을 닫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는 이진. 이진의 옆으로 자막.

"수"

고음의 소음이 이어지다가 ...

다시 진동이 울린다. 진동이 울리는 순간, 고음의 소음은 원래 데시벨로 돌아간다. 이진, 고개를 푹 숙이고는 세상 무너져라 한숨. 이진은 곧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받는 순간, 파일에 비춰진 이진의 모습이 보인다. 여전히 기울어진 앵글. 파일의 표면이 살짝 구부러져 있어서, 이진이 살짝 왜곡되고 구겨지게 보인다.

이진
네 ... 몰라요 아직. ... 그냥 괜찮게 한 거 같아요. 아
생일 파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알면서. 끊어요.

이진은 전화를 끊는다. 이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지갑을 열어서 지갑 안의 돈을 확인해본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거대한 눈의 POV:
이진이 가만히 담배를 물고 있다. 그 순간, 이진이 담배를 조금 험령하게 물고 있었던 건지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떨어진다. 이진, 재빠르게 담배를 쭈는다. 카메라는 이진의 움직임을 따라 PAN. 이진, 담배를 보다가 담배를 후 불고는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문다. 이번엔 조금 더 짝 무는 거 같기도 하고. 지포라이터 여는 소리. 부싯돌 돌리는 소리. 담배에 불 붙는 소리.

CUT TO:

EXT - 골목 2 - 오전

이진과 그녀의 옆에 있는 재영이 보인다. 재영은 이진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재영의 손에는 역시 담배가 들려있다. 재영은 담배를 검지와 중지로 잡고 핀다. 이진은 이번에도 담배를 물고만 있다. 자막.

"목"

재영
잘했어?

이진, 헛웃음처럼 펑하고 웃고는.

이진
다 좇망했어.

재영
왜 좇망을 해.

이진
아니 카페 면접 때문에, 시간 애매해서 늦을까봐 불안하고.
긴장해서 말도 병신같이 막 더듬구.

이진, 잠깐 가만히 있다가 뭔가 생각난 듯 노트를 꺼내다가, 뭔갈 쓸 느낌이 아닌 듯하다. "써서 뭐해 ..." 이런 표정. 그냥 노트를 집어넣는다.

재영
왜 안 적어?

이진
그냥, ... 쓸 맛이 안 난다.

재영
... 어쨌던. 그냥 그런 상황이면 하나를 포기해.

이진, 말 없다. 담배를 핀 것처럼 다시 담배를 입에서 뺀다. 그리고는 다시 문다.
이진, 정적 속에서 화제를 돌리려는 듯;

이진
글은 잘 써져?

재영
그냥. 그럭저럭 힘들어. 이번에 하나 영화화되기로 했어.

이진
부럽다.

재영
부럽긴.

이진
부러워. 너도 부럽고, 준상이기도 부럽고.

재영
준상이 이름 진짜 오랜만에 듣네. 잘지내 개?

이진
어. 오랜만에 봤는데, 알바 중이야. 연기는 내년부터 한대.

재영
어디서 한대? 알바

이진
그, 담배 가게. 씨가파는 그런 가게 있잖아.

재영
진짜? 우리 가면 깎아줄라나. 그거 펴보고 싶었는데.

이진
너만 가. 난 안 펴.

담배를 문 상태로 그 말을 하니, 살짝 웃긴 느낌이 들기도.

재영
에이.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진, 재영을 본다. 그 사이에 재영은 담배를 뺀다. 약간의 정적. 이진이 정적을 깬다.

이진
아 맞아 개 여친 생겼대.

재영, 담배 연기를 뽏고는.

재영
진짜? 으휴- 부럽다. 나도 생겼음 좋겠네.

이진
소개 시켜줄까?

재영
응? 뭘 소개야. 됐어.

이진
왜 야. 내가 그--

이진, 뭔갈 말하려다가 잠깐 고민하고는.

이진
... 친구로써. 소개 시켜준다니까.

재영, 이진을 보고는 담배를 뽏다. "친구로써"라는 말을 생각하는 듯. 약간 섭섭한 표정같기도.

재영
셋이 모여서 술 한 잔 해야지. 이자카야 가자.

이진
그래야지. ... 이자카야 비싸잖-- ... 아니다 ...

재영
내가 쓸게.

이진
진짜? 아 그러지마. 괜히.

재영
누나니까 사지.

이진, 고마운 듯 가볍게 미소.

이진
근데 살짝 아깝지 않아?

재영
뭐가? 돈이?

이진
아, 아니. 그냥, 너 연기 되게 오래했잖아. 아깝지 않아?

재영
그닥. 내가 고른 거니까.

이진, 그 말이 매우 부러운 듯 하다.

이진
부럽다. ... 주변에서 너무 뭐라고 해서. 뭘 어쩔지를 못
하겠어.

재영
뭐라 하는데.

이진
그냥, ... 연기 잘 되지도 않는데 왜 하나. 뭐하고 사냐.
이제 서른인데. 그런 말. ... 아니 여자 쓰는 각본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 ...

재영
존나 짜증나지 그런 거. 무시해 그냥. ... 무시할 수
있으면.

이진은 재영의 말을 듣고는 뭔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발이 불편해진 듯 아래를 본다.

이진
신발 바꿔야 되나 진짜.

재영
왜.

이진
신발이 한 쪽만 작아.

재영
진짜? 나도 그러는데. 신기하다.

이진, 신발을 보다가 고개를 들고는 담배를 담배갑에 다시 넣는다. 재영, 이진이
담배를 넣는 것을 보고 가볍게 웃고는.

재영
언제부터 그 상태로 있던 거야?

이진
반 년 전부터.

재영
연기할 때 많이 찢었잖아. 썩었겠다 지금.

이진
안 썩었어 아직. ... 아마.

이진, 담배갑을 보다가.

이진
... 안 썩었으면 좋겠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거대한 눈의 POV:
이진이 담배들을 보다가 하나를 꺼내서 문다. 이진은 담배를 물고 있다가, 담배를
입에서 뱉다. 곧 다시 문다. 한숨.

CUT TO:

INT - 이진의 집 거실 - 밤

시계가 보인다. 8시다. 시계는 이번에도 눈동자처럼 보인다. 시계 옆으로 자막.

"금"

이진이 전화기를 들고 서성이고 있다. 앵글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항상 전화만 오면 한숨만 쉬던 이진이 지금은 전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진은 곧 창 밖을 본다. 이미 어둡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본다. 한숨.

이진은 전화기를 책상에 탕-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떨어놓고 책상에 털썩- 앉는다. 세상이 무너질 거 같다. 온갖 감정이 이진을 덮치는 듯 하다. 눈동자도 떨리고. 곧 전화기 진동이 울린다. 이진, 화들짝 놀라서 전화기를 보지만, 이번에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인 듯, 표정이 썩고, 책상을 광-! 친다. 짜증을 잔뜩 내고는, 곧 전화를 받는다. 이진의 앞으로는 눈 그림이 보인다.

이진
(최대한 침착하게)
네. ... 안 된 거 같아요. ... 또 알아볼게요. ...
알았다고요.

마지막 "알았다고요"에서 온갖 감정이 느껴진다. 이진은 전화를 끊는다. 이진은 움직일 힘도 없는 듯, 그 자리에 굳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 이진은 곧 다시 전화기를 든다. 그리고는 잠깐 고민하는 듯 가만히 있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CUT TO:

EXT - 다른 거리 - 오전

기울어진 앵글. 재영이 가로등 아래에서 전화기에 뭔갈 적고 있다. 이진이 걸어오는 소리. 재영, 이진이 오는 곳을 보고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문다.

이진이 재영에게 다가온다. 재영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이진, 말 없이 담배를 꺼내문다.

이진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재영
연락하는 사람 없어. 그냥 뭐 적고 있던 거야.

이진
이제 좀 작가같네. 작업 중인데 방해한 거 아니지?

재영,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는 이진의 표정을 본다. 재영은 이진의 표정만 봐도 이진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듯.

재영
괜찮아. 담엔 잘 되겠지.

이진
...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 ... 아니다.

재영
알아. 강.

이진, 담배를 입에서 빼고는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진
... 이런 일주일로 평생을 산 거 같아.

재영은 말 없이 담배만 피고.

이진
... 나는 왜, ... 왜 이럴까. 주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서르--

이진, "서른"이라 말하려다가 말을 바꾼다.

이진 (CONT'D)
... 스물 아홉인데, ... 내 거짓말이 현실이 되는 거
같아서 두려워.

재영
울지 마-- ... 아니다. 울고 싶으면 세상 떠나가게
울어야지.

이진, 재영이 고마운 듯 미소를 짓는다.

이진
고마워.

CUT TO:

INT - 이진의 집 거실 - 밤

기울어진 앵글. 이진이 눈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다.

이진의 POV:
눈 그림.

곧 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 그림으로 다가간다. 그 순간, 눈 그림에서 천천히 ZOOM OUT. 이진은 그림을 뒤집어서 벽에 기대게 내려놓는다. 고음의 소음은 여전히 들린다.

기울기가 똑바로 된 이진이 책상에 앉는다. 곧 전화가 온다. 이진은 전화기를 보고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진은 일어나서 자기 옷을 들고 오더니 그 옷으로 전화기를 덮어 놓는다. 멍멍하게 들리는 진동소리. 진동소리가 좀 작아지자, 고음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린다. 그 순간, 화면의 기울기가 조금 기울어진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거대한 눈의 POV

이진이 가로등 아래에서 담배를 문다. 그리고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담배갑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켜다. 그 순간, 라이터에서 가스 나오는 소리와 함께 고음의 소음이 더 커진다. 소음은 계속 그 데시벨을 유지한다.

거대한 눈이 보인다. 프롤로그 다음으로 처음 보이는 눈이다. 지금 보니 거대한 눈은 이진의 눈과 굉장히 닮아있다. 프롤로그와는 약간 다르게 카메라는 천천히 눈으로 ZOOM IN. 거대한 눈이 점점 다가오는 듯한 느낌.

거대한 눈의 POV가 아니다. 라이터에서 가스 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진은 불이 켜진 라이터를 가만히 들고 있다가 곧 라이터 불을 끈다. 장면의 앵글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로렌스가 성냥을 불어서 끄는 장면([LAWRENCE OF ARABIA] MATCH CUT)과 비슷하다.

라이터 불을 끄는 순간 ... 가스 소리가 사라지고 ...

CUT TO BLACK.

INT - 이진의 방 안 - 밤

어두운 화면. 곧 화면에 전화기 불빛이 켜지는게 보인다. 전화가 온 것 같다. 전화기 불빛은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아직도 앵글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진이 진동은 꺼놓은 듯 전화기에서 진동이 울리진 않는다. 이진, 전화기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깬 듯 전화기를 보는데, 모르는 번호인 듯 전화기 화면을 한참 보다가 전화를 받는다.

이진
... 여보세요?

이진, 전화를 받으며 침대 아래로 손을 뻗어서 침대 옆에 있는 랜턴을 켜다. 화면이 점점 밝아진다.

이진(CONT'D)
네. ... 네? 진짜요? ... 네, 감사합니다.

이진, 앉는다. 카메라는 이진을 따라 PAN UP. 부스럭 소리.

이진(CONT'D)
네? 진짜요? ... 네, 감사합니다.

거대한 눈이 보인다. 처음으로 가로등 아래가 아닌 곳에서 보이는 눈이다. 고음의 소음이 조금 더 커진다. 곧 이진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거대한 눈과 이진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거대한 눈으로 천천히 ZOOM IN.

이진(CONT'D)
음 ...

거대한 눈의 POV:
전화받는 이진이 보인다.

이진(CONT'D)
생각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전화를 끊는다. 알바건, 오디션이건, 뭔가 희소식인 듯 한데, 이진의 얼굴은 그닥 밝지가 않다. 이진은 눈을 가리기도 하고. 한숨을 퍽 쉬기도 하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찍지 않고 오래 찍는다. 이진의 눈에는 곧 눈물이 고인다. 곧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리고.

CUT TO:

INT - 집 안 베란다 - 새벽

새벽. 비가 온 후 물이 묻은 창문. 빗물이 주르륵- 흐른다. 우는 이미지.

CUT TO:

EXT - 골목 3 - 낮

고음의 소리가 원래 데시벨로 돌아온다. 이진과 준상이 보이는데, 둘은 비가 온 후에 생긴 웅덩이에 비춰보인다. 준상의 웅덩이가 더 크다. 이진의 웅덩이는 씬의 시작과 동시에 약간 일렁인다. 이진이 왜곡되게 비춰진다. 준상은 담배를 피고 있다. 여전히 검지와 엄지로 담배를 핀다. 이진도 여전히 담배를 물고만 있다. 자막.

"토"

이진
나 그거 됐어.

준상
어떤 거?

이진
그, ... 영화 있잖아. 오디션 본 거.

준상
잠만, 진짜?

이진, 가볍게 웃으며. 여기까지 이진은 그저 좋은 소식만 전해줄 것 같다.

이진
당연히 진짜지.

준상
오, 축하해! 진짜.

이진, 준상의 말을 듣고는 가볍게 미소 짓지만, 몇 초 후에 이진의 표정은 완전히 굳는다. 그리고 이진이 입을 여는데;

이진
... 근데 ...

준상
응?

이진
안 할 거 같아.

준상, 당황스러운 듯.

준상
... 뭐? 잠만. 왜.

이진
...

긴 정적. 이진, 고개 숙이고는;

이진
... 진짜 내가 싫어 이럴땐.

이진, 고개를 들고는 준상을 보고;

이진
... 페이지 적어.

준상, 할 말 없다.

이진
이제 나이도 있는데 ... 돈 모아야 될 거 같아.

준상
누가 돈 모으라고 지랄했지.

이진,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이진
... 아니. ... 복잡하다. ... 이번엔 내가 너무 복잡해.

CUT TO:

EXT - 거리 1 - 오후

아직 햇빛은 남아있다. 기울어진 앵글. 전에 나온 거리 1의 반대 앵글이다. 울퉁불퉁한 반투명유리가 있는 건물이 보인다. 카메라는 유리를 찍는다. 이진이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이진은 유리에 살짝 왜곡되고 구겨지게 비춰진다. 이진, 걷다가 유리를 잠깐 보고는 멈춰서 그 반투명유리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본다.

이진의 POV:
반투명 유리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울퉁불퉁한 모습. 그 위로 재영의 목소리.

재영(VO)
왜 안하는데.

CUT TO:

EXT - 다른 거리 - 오후

해가 지고는 있지만, 아직 햇빛이 남아있는 오후. 이진과 재영이 보인다. 재영은 담배를 피고 있고, 이진은 여전히 담배를 물고만 있다. 이미 대화가 조금 진행된 듯, 재영의 담배는 반정도 타들어가 있다.

이진
안 할 거 같다고.

재영, 이진에게 맞춰준다.

재영
왜 안 할 거 같은데.

정적. 재영, 이진을 읽기라도 한 듯.

재영
... 페이 땀에 이러지. 얼만데 페이?

이진의 정곡이 찢린다.

이진
... 오만원. 회차당.

재영
아니, ... 그래도. 각본 맘에 든다며.

이진
... 그래도 돈이, ... 반 년 전이라면 신나서 했을텐데.
... 좇같다 ...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재영, 이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 본다.

CUT TO:

EXT - 거리 2 - 오후

거리 2의 반대 방향. 햇빛이 거의 없다. 기울어진 카메라는 이진의 뒤를 따라간다. 이진의 허리까지만 보인다. 거리의 오른쪽 아래에는 전등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진이 걸을때마다 특이한, 동시에 반복적인 빛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진이 걸던 중 흘깃 왼쪽을 보는데, 뭔가를 본 듯, 곧 멈춘다. 그리고는 왼쪽 위를 응시한다.

카메라, 기울어진 앵글로 이진과 거리 전체가 다 보이게 찍는다. 거리의 왼쪽으로 이진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전등이 아래에 있어서 거리의 왼쪽에 비춰진 이진의 그림자가 이진보다 훨씬 더 크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거대한 눈의 POV:
이진이 담배를 물고 가만히 서있다. 뭔갈 고민하는 것 같기도.

카메라, 이진을 더 가까이서 찍는다. 뭔가를 생각하는 이진의 눈.

CUT TO:

EXT - 이진의 플래쉬백 - 거리 1 - 오후

이진의 POV:
반투명 유리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

CUT TO:

EXT - 이진의 플래쉬백 - 거리 2 - 오후

이진의 POV:
거리의 왼쪽에 비춰진 이진의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로 천천히 ZOOM IN. 마치
거인이 다가오는 것 같다.

DISSOLVE TO:

INT - 이진의 집 거실 - 오후

거대한 눈으로 디졸브. 여전히 거대한 눈으로 느린 ZOOM IN.

거대한 눈의 POV:
이진, 고민하듯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다. 이진의 옆으로 자막.

"일"

이진의 시선이 어딘가로 향한다. 카메라는 이진의 시선을 따라간다. 책상의 한 쪽에
놓인 이진의 프로필. 이진, 프로필로 손을 뺀다.

이진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이진의 눈이 크게 보인다. 마치 프로로그의 거대한 눈
같다.

이진, 프로필을 보고 있다. 기울어진 앵글의 기울기가 점점 똑바르게 회전한다. 결국
수평이 맞는 이미지가 된다.

CUT TO:

EXT - 가로등 아래 - 밤*^

밝은 가로등이 보인다. 가로등 빛 아래로, 짙은 담배 연기가 나오는 것이 보인다.
누군가가 담배 연기를 뿜은 듯. 이진일까.

거대한 눈의 POV가 아니다. 이진은 담배를 물고 있다. 불 붙은 담배를 문 재영이
이진의 앞에 있다. 담배를 피는 건 역시 재영이다. 재영,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며;

재영
괜찮아? 이 시간에 다 부르고.

이진
괜찮아.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재영
... 괜찮아?

이진, 가볍게 웃고는;

이진
괜찮다니까. 그냥 ... 너한테 미안해서. 아니, ... 계속
미안했었어.

카메라는 둘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천천히 둘에게 다가가고 있다. 롱테이크.

재영
왜.

이진
일에 집중한다고 나만 괜히 난리친 건데. ... 반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 너 되게 슬퍼했잖아. 내가 너 ...
찾던 날. ... 그냥 ... 너한테 미안해. 그랬어 그냥.

재영, 말 없이 이진의 팔을 잡아준다. 이진도 말 없이 재영의 손을 잡는다.
작아보이지만, 둘에겐 큰 순간이다.

재영
안 미안해도 돼.

잠간의 정적.

이진
... 고마워. ... 그리구.

잠간의 정적. 그 사이에 카메라는 계속 다가가서, 화면엔 이진만 남긴다. 이진의 싱글
(SINGLE).

이진 (CONT'D)
... 나 정했어.

재영, "이진이 뭘 정했을까" 생각 하는 듯 잠간의 정적 후;

재영
잘했어.

이진
나, 내일 생일이야.

재영
... 알아.

이진, 재영을 보고는 가볍게 미소를 짓는다.

이진
준상이랑 같이 술 한 잔 하자.

잠간의 정적 후.

이진 (CONT'D)
서른이야. 이제.

그 말을 하고는 혼자 고민하는 듯한 이진. 이진, 라이터를 꺼낸다. 카메라는 약간의
로우앵글로 이진을 찍으며 계속 이동하는데, 마치 이진의 주위를 도는 것처럼 이진의
측면에서 이진의 정면으로 이동한다. 이진이 화면의 정중앙에 왔을때, 이진은 라이터를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 순간 ...

고음의 소리와 대비가 적었던 푸른 흑백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비가 강한 컬러로 바뀐다. 이진이 항상 아래에 있던 가로등의 빛은 오렌지 색이어서, 푸른빛과 완전히 보색이다. 이진은 담배를 핀다. 이진은 담배를 중지와 엄지로 잡아서 핀다. 여태 가로등 아래에선 이진의 왼쪽만 찍던 카메라는 이진의 반대편(=오른쪽)까지 간다. 이진의 왼쪽에 있던, 거대한 눈이 있었을 거리가 보인다. 그 거리엔 아무것도 없다. 이진, 눈이 있었던 거리를 잠깐 보고는 계속 담배를 핀다. 담배를 한 번 들어서 담배의 끝(=불이 붙은 곳)을 살살 불기도 한다. [비겁한 로버트 포트의 제시 제임스 암살]에서 WOOD HITE가 담배의 끝을 살살 부는 장면이 생각난다. 카메라는 이진이 담배 피는 것을 끝까지 찍는다.

CUT TO BLACK.

THE END